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선행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Seon-Haeng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eon-Haeng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82 Mangwoo(St), Dongdaemun-gu Seoul 130-711, Korea, Tel: +82-02-3407-8622, Fax: +82-02-3407-8639, E-mail: haeng5355@hanmail.net

Received: 3 August 2015; Revised: 24 November 2015; Accepted: 11 December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88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4.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5 items),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6 item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53 items). The instrument fo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as adapted from Baker and Sirky and modified by Kwon. Likert 5 point scale adaptation included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Cronbach's α was 0.80 in the study.

Results: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as 3.0 points.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was, the higher the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p<0.001$) and academic adaptation were($p<0.05$).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tuition support by parents and part-time employment($p<0.05$). The part-time employment was significantly helpful to future job selection, social adapt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p<0.001$). Economic stability and advantage of future job sele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So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as proportional to younger age, economic stability, and advantage to future job selection.

Conclusions: It is very important to give a positive motivation and stimulation, and a careful counseling to the students in part-time employment. In order to encourage the part-time employed students, major-related part-time job opening must be given.

Key Word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ntal hygiene student, part-time employment

색인: 대학생활적응, 아르바이트, 치위생과 학생

서론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pyright©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학생의 시간제 취업(part-time employment)이란 상시 또는 전일제 고용이 아닌 형태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상 아르바이트라고 불려 왔다.

최근 우리사회의 고용 유형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른바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

존의 인력보다는 주로 청소년 주부 노인과 같은 주변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¹⁻⁵⁾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80%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밀어내는 요인과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즉,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계 및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가 점차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일제 고용이 아닌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간제 일자리들이 늘어나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⁶⁾. 이처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높아지게 된 것은 청소년의 필요와 사회변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⁷⁾. 또한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서비스업의 빠른 증가는 미숙련 단시간 노동력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⁸⁾.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인 경우 많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중어지고 IMF 이후에 치솟는 물가와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노출되고 있다. 백⁹⁾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67.3%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는 학비 마련과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일의 종류나 가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다. 단지 자신이 바라는 수단으로서 단기간, 저임금의 특정기술이 필요 없는 일로서 미래 희망하는 직업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학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하는 아르바이트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⁰⁾. Koeske와 Koeske¹¹⁾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영향은 아르바이트의 부담이 클 경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역할에서의 과도한 부담이 다른 역할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관점이다. 즉 노동 부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대학생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경우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자기개발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불리한 조건을 지니게 된다.

임과 양¹²⁾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약 58% 정도만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40%만이 대학 다니는 동안 취업준비를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가 직업세계로 진입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미미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이다. 시간의 배분을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공부는 장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 투자

효과는 노동시간 중에 회수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¹⁰⁾. 재학 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그러한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아르바이트를 이용함이 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온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 실습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총 295명 가운데 자료가 미비한 7명을 제외한 총28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아르바이트 경험행태 6문항, 대학생활적응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ky¹³⁾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권¹⁴⁾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적응 내용의 문항들은 역산한 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학생활적응 문항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는 0.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르바이트 경험행태, 대학생 활적응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아르바이트 경험행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각각의 차이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 Mann-Whitney 검정,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아르바이트 경험행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학생 4.9%, 여학생 95.1%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31.9%, 2학년 29.9%, 3학년 38.2% 이었다. 대학성적수준을 보면 3.0-4.0 미만이 6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미만 28.8%, 4.0이상 5.6%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인 경제계층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 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5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 33.3%이었다. 등록금 납부방식은 부모님 지원 66.7%, 장학금 53.8%, 학자금대출 19.1%, 아르바이트 13.5% 순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행태

본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용돈마련이 8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29.5%, 학비마련 18.4%순이었고, 아르바이트 시기로는 주말 57.3%, 평일과 주말 21.5%, 평일 11.5%이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10시간 이하 44.1%, 11-20시간 41.0%, 21시간 이상 14.9%이었으며, 아르바이트 월수입은 21-40만원이 50.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0만원 이하 23.6%, 41만원 이상 25.7%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도움이 된다 46.2%, 보통이다 31.6%,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2%순이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부책무로는 진로연계강화 38.5%, 일자리 확대 31.3%, 부당노동행위 처벌 30.2%를 나타내었다 <Table 2>.

3.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평균이 3.0이었고, 하부영역 요인에서 대학환경적응 3.2, 사회적응 3.1, 개인정서적응 2.8, 학업적응 2.8로 조사되었다 <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대학생활적응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별, 성적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도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전체 대학생활적응도는 ‘상’ 3.2, ‘중’ 3.0, ‘하’ 2.9이었고 Scheffe 검증결과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사회적응은 남학생 3.4, 여학생 3.1로 Mann-Whitney 검정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응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학년별 개인정서적응도는 1학년 3.0, 2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14(4.9)
	Female	274(95.1)
Grade	1	92(31.9)
	2	86(29.9)
	3	110(38.2)
Record	< 3.0	83(28.8)
	3.0-4.0	189(65.6)
	≥4.0	16(5.6)
Economic level	High	20(6.9)
	Medium	172(59.7)
	Low	96(33.3)
Tuition*	Parents support	192(66.7)
	Part-time employment	39(13.5)
	Scholarship	155(53.8)
	Loan	55(19.1)

*Tuition: plural response

Table 2. The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behavior

Variables	Classification	N(%)
Motivation*	Tuition	53(18.4)
	Career experience	50(17.4)
	Living money	85(29.5)
	Making extra expenses	236(81.9)
Period	Weekdays	33(11.5)
	Weekend	165(57.3)
	Both	62(21.5)
	Only vacation	28(9.7)
Hours a week	≤ 10	127(44.1)
	11-20	118(41.0)
	≥ 21	43(14.9)
Income per month	≤ 20	68(23.6)
	21-40	146(50.7)
	≥ 41	74(25.7)
Future job benefit	No	64(22.2)
	Usual	91(31.6)
	Yes	133(46.2)
Government responsibility	Career related enhancement	111(38.5)
	Job opening	90(31.3)
	Punishing unfair labour practice	87(30.2)

*Motivation: plural response

Table 3.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N=288)

Variables	Substructure	Mean±S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3.0±0.3
	Personal emotion adaptation	2.8±0.5
	Academic adaptation	2.8±0.4
	Social adaptation	3.1±0.4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3.2±0.5

년 2.8, 3학년 2.7이었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결과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경제적 수준별 개인정서적응도는 ‘상’ 3.3, ‘중’ 2.8, ‘하’ 2.7이었고 Scheffe 검증결과 ‘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대학성적수준별 학업적응도는 3.0 미만군 2.7, 3.0-4.0 미만군 2.8, 4.0 이상군 3.0으로 Scheffe 검증결과, 4.0 이상 집단이 3.0 미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경제적 수준별 학업적응도는 ‘상’ 3.0, ‘중’ 2.8, ‘하’ 2.7이었고 사후검증결과,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4>.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연구대상자의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학생활적응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 지원’ 집단과 ‘아르바이트’ 집단에서 전체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p<0.05$), ‘장학금 수혜’, ‘대출’ 집단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요인별 분석에서는 ‘부모님 지원’ 집단에서는 개인정서적응($p<0.05$)이, ‘장학금수혜’ 집단에서는 학업적응($p<0.01$)이, ‘대출’ 집단에서는 사회적응($p<0.05$)이 높았고, ‘아르바이트 집단($p<0.01$)’, ‘장학금 수혜’ 집단($p<0.05$)에서는 각각 대학환경적응($p<0.01$, $p<0.05$)이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1>.

5. 아르바이트 경험형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아르바이트 시작동기에 따른 전체 대학생활적응도는 ‘학비마련’에서 ‘예(2.9)’ 라고 응답한 집단이 ‘아니오’ 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진료경험, 생활비, 용돈마련 요인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요인별 분석에서는 아르바이

Table 4.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Variables	Classificati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Gender	Male	3.2±0.4	3.1±0.6	3.0±0.5	3.4±0.4	3.3±0.6
	Female	3.0±0.3	2.8±0.5	2.8±0.5	3.1±0.4	3.2±0.5
					$z=-2.436$ $p=0.015^*$	
Grade	1	3.0±0.4	3.0±0.5 ^{ab}	2.8±0.4	3.1±0.4	3.2±0.5
	2	3.0±0.3	2.8±0.5	2.8±0.4	3.1±0.4	3.2±0.5
	3	2.9±0.3	2.7±0.4 ^{ac}	2.8±0.3	3.0±0.4	3.1±0.4
					$F=8.159$ $p<0.001^*$	
Record	< 3.0	2.9±0.2	2.8±0.4	2.7±0.3 ^{ac}	3.1±0.4	3.2±0.5
	3.0-4.0	3.0±0.3	2.9±0.5	2.8±0.4	3.1±0.4	3.2±0.5
	≥ 4.0	3.1±0.6	2.9±0.6	3.0±0.6	3.1±0.7	3.3±0.7
					$p=0.017^*$ $F=4.147$	
Economic level	High	3.2±0.2 ^{ac}	3.3±0.5 ^{ac}	3.0±0.2 ^{ac}	3.3±0.3	3.1±0.4
	Medium	3.0±0.3	2.8±0.4 ^{ab}	2.8±0.3	3.1±0.4	3.1±0.4
	Low	2.9±0.4	2.7±0.5	2.7±0.4	3.0±0.5	3.2±0.6
		$p=0.016^*$ $F=4.225$	$p<0.001^*$ $F=12.030$	$p=0.014^*$ $F=4.300$		

*by Mann-Whitney U-test, t-test,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alpha=0.05$.

Table 4-1.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Variable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Parents support	Yes	3.0±0.3	2.9±0.5	2.8±0.4	3.1±0.4	3.2±0.5
	No	2.9±0.3	2.7±0.5	2.7±0.4	3.0±0.4	3.2±0.5
		$p=0.020^*$ $t=2.339$	$p<0.001^*$ $t=3.788$			
Part-time employment	Yes	3.1±0.3	2.8±0.5	3.0±0.4	3.2±0.4	3.4±0.6
	No	2.9±0.3	2.8±0.5	2.7±0.4	3.1±0.4	3.1±0.4
		$p=0.010^*$ $t=2.584$		$p=0.005^*$ $t=2.912$		$p=0.003^*$ $t=3.043$
Scholarship	Yes	3.0±0.3	2.8±0.4	2.8±0.4	3.1±0.5	3.2±0.5
	No	3.0±0.3	2.9±0.5	2.8±0.3	3.1±0.4	3.1±0.4
Loan	Yes	2.9±0.3	2.8±0.4	2.8±0.3	3.0±0.4	3.1±0.4
	No	3.0±0.3	2.9±0.5	2.8±0.4	3.1±0.4	3.2±0.5
					$p=0.049^*$ $t=-2.015$	
					$p=0.019^*$ $t=-2.390$	

*by t-test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alpha=0.05$.

트 동기가 ‘학비마련’ 인 경우는 개인정서적응(p<0.001), 사회적응(p<0.05)이 각각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진로경험인 경우, 사회적응(p<0.05)이, 생활비는 개인정서적응(p<0.05)에서 높게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5.1. 아르바이트 경험행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아르바이트 시기, 주당시간, 월수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집단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하위영역 요인중 학업적응과 월수입과의 관계에서는 20만원 이하군 2.8, 21-40만원군 2.7, 41만원 이상군 2.9로 월수입이 많을수록 학업적응도가 높았으나 Scheffe 검증결과, 집단간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가 ‘미래직업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p<0.001), 사회적응(p<0.001)과 대학환경적응(p<0.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검증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 책무에서는 ‘일자리 확대’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 검증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1>.

6.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 설명력은 9.7%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p<0.01), 경제적 수준(p<0.05), 미래직업도움(p<0.001)이었다. 즉, 학년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직업에 도움이 될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다<Table 6>.

총괄 및 고안

오늘날 경제 및 산업구조가 대량생산과 제조업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가 직업관련경험 축적, 직업의식 발달, 사회적 관계경험 축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행태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시작동기로는 ‘용돈마련’ 81.9%로 가장 높았고 학비마련, 진로경험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류²⁾, 김⁴⁾, 백⁹⁾의 연구성과 유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 스스로 노동에 내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15,16)}. 아르바이트 시기는 ‘주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김⁴⁾의 연구보고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학업과의 병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임을 예측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아르바이트의 주요 특성으로서 노동 강도를 나타내는

Table 5.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behavior Unit: Mean±SD

Variable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Tuition					
Yes	2.9±0.3	2.6±0.4	2.7±0.4	3.0±0.4	3.2±0.7
No	3.0±0.3	2.9±0.5	2.8±0.4	3.1±0.4	3.2±0.4
	p=0.021*	p<0.001*		p=0.019*	
	t=-2.330	t=-3.422		t=-2.356	
Career experience					
Yes	3.0±0.3	2.9±0.5	2.8±0.3	3.2±0.3	3.3±0.5
No	2.9±0.3	2.8±0.5	2.8±0.4	3.1±0.4	3.1±0.5
				p=0.027*	
				t=2.222	
Cost of living					
Yes	3.0±0.3	2.7±0.4	2.8±0.4	3.1±0.5	3.2±0.6
No	3.0±0.3	2.9±0.5	2.8±0.4	3.1±0.4	3.1±0.4
		p=0.016*			
		t=-2.415			
Making extra expenses					
Yes	3.0±0.3	2.9±0.5	2.8±0.4	3.1±0.4	3.2±0.5
No	2.9±0.3	2.8±0.5	2.7±0.4	3.0±0.5	3.1±0.4

*by t-test

Table 5-1.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behavior Unit: Mean±SD

Variables	Classificati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Period	Weekdays	2.9±0.3	2.8±0.5	2.8±0.3	2.9±0.3	3.1±0.5
	Weekend	3.0±0.3	2.9±0.5	2.8±0.3	3.1±0.4	3.1±0.4
	Both	3.0±0.4	2.7±0.4	2.7±0.4	3.1±0.5	3.3±0.6
	Only vacation	3.1±0.3	2.8±0.5	2.9±0.4	3.3±0.4	3.3±0.5
Hours a week	≤10	3.0±0.3	2.8±0.5	2.8±0.4	3.1±0.5	3.2±0.4
	11-20	3.0±0.3	2.9±0.5	2.8±0.3	3.1±0.3	3.1±0.5
	≥21	3.0±0.4	2.8±0.5	2.8±0.5	3.0±0.5	3.2±0.6
Income per month	≤20	2.9±0.3	2.8±0.5	2.8±0.4	3.0±0.5	3.2±0.4
	21-40	3.0±0.3	2.9±0.5	2.7±0.3	3.1±0.4	3.1±0.4
	≥41	3.0±0.4	2.8±0.5	2.9±0.4	3.2±0.5	3.2±0.6
				p=0.047*		
				F=3.082		
Future job benefit	No	2.9±0.3 ^{ac}	2.9±0.5	2.7±0.4	3.0±0.4 ^{ac}	3.0±0.5 ^{ac}
	Usual	2.9±0.3 ^{bc}	2.8±0.5	2.7±0.4	3.0±0.4	3.0±0.4
	Yes	3.1±0.3	2.9±0.4	2.8±0.3	3.2±0.4	3.3±0.5
				F=8.329	F=8.440	F=12.071
				p<0.001*	p<0.001*	p<0.001*
Government responsibility	Career related enhancement	2.9±0.3	2.8±0.5	2.8±0.3	3.0±0.4	3.1±0.4
	Job opening	3.0±0.3	2.9±0.5	2.8±0.4	3.1±0.4	3.3±0.4
	Punishing unfair labour practice	2.9±0.3	2.8±0.5	2.7±0.4	3.1±0.5	3.1±0.5
				F=3.287	F=3.167	
				p=0.039*	p=0.044*	

Income per month's unit; 10,000 won

*by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α=0.05.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Variable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B	SE	β	t	p-value*
Grade	-0.068	0.025	-0.156	-2.725	0.007
Economic level	0.088	0.036	0.139	2.408	0.017
Hours a week	-0.022	0.039	-0.043	-0.564	0.573
Future job benefit	0.102	0.027	0.222	3.851	0.000
Government responsibility	-0.016	0.025	-0.038	-0.655	0.513
Income per month	0.059	0.039	0.114	1.531	0.127
R ² = 0.097 F= 5.005 p<0.001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김¹⁶⁾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노동시간에 의한 영향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지점은 주당 15시간 노동에서 주당 20시간 노동 사이의 지점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11시간 이상이 55.9%를 보여 학교부적응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부책무로는 ‘진로연계 강화’, ‘일자리 확대’ 이었는데 이는 전공관련 일자리 창출과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내의 제도적 물리적 인적 환경과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⁴⁾.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응이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정서적응이, 대학성적이 좋을수록 학업적응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이 높게 나타나 김⁴⁾, 권¹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같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대학생활을 지각하는 성향이 다르며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학습습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수준이 낮아 학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학업적 스트레스와 함께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저학년인 신입생에서 사회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Baker 등¹⁷⁾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입생들이 실제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대학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음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하였다. 등록금 납부 방식에서 부모님 지원인 경우, 대학생활적응,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아르바이트, 장학금 수혜인 경우 대학환경적응에 유의하였다. 이는 전반적 대학생활수준은 개인적, 경제적 수준 및 대인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며, 소속대학에서의 적응은 학교제도나 시설 등 외적요인, 진로 및 취업 전망 등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 시작동기가 ‘학비마련’, ‘진로경험’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월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학업적응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백⁹⁾의 연구보고와 유사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개인성향, 학교, 사회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은 어느 한계 이하의 적정수준에서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학업과 미래에 직업을 갖기 위한 도움과 자극을 받게 됨으로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지만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는 체력적인 저하, 심리적인 부담과 자기개발에 대한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 본 연구에서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21시간 이상 군에서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이 낮게 조사되었으나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⁴⁾의 연구성과 상이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학생의 성별, 학년, 학과, 연구도구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학년, 경제적 수준, 미래직업도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년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직업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가 중요하며, 시간제취업 대학생

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개정 및 규제의 강화등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단면연구인 점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 관련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4년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전문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0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서적응($p<0.001$), 학업적응($p<0.05$)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등록금 납부방식이 ‘부모님 지원’, ‘아르바이트’인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높아 유의하였다($p<0.05$).
3. 아르바이트가 ‘미래직업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4.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학년, 경제적 수준, 미래직업도움이였다. 즉 학년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동기와 자극을 부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미래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행정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o YJ. A study on the way of supporting and analysis

- according to the youth who job part-time of labor condi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Myong ji, 2003.
2. Ryu YH. A Study on the Part-time Work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Kongju: Univ. of Kongju National, 2005.
 3. Ko KW, Nam CY. A study on the perceived level of stress of college students with part-time work experience. *J Korean Adol Wel* 2012; 14(2): 149-68.
 4. Kim MJ.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Master's thesis]. Jeju: Univ. of Jeju, 2013.
 5. Kim HG. Study on labor experience of young people working part tim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onggi, 2013.
 6. Carr RV, Wright RD, Broody CJ. Effect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J Socio of Edu* 1996; 69: 66-81.
 7. Im SJ. Job experience of youth in a fast-food restaurant [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3.
 8. Mun EY. Problem and counterplan of youth part-time job in Korea Labor Market[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ookmyung Women's, 2003.
 9. Baik JS. Part-tim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and its effects on college adaptation. *Korean of Youth Facil Envi* 2006; 4(1): 3-17.
 10. Lee KH.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the part time jobs for youth. *J Korean Adol Wel* 2001; 3(2): 25-39.
 11. Koeske RD, Koeske GF. Working and non-working students; roles, support and well-being. *J Soci Work Edu* 1989; 25(3): 244-56.
 12. Ihm CS, Yang BM. An analysis of employment selection and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J Edul Admin* 2006; 24(3): 1-25.
 13. Baker RW, Sirky BD.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eli Psycho* 1984; 31: 179-89.
 14. Kwon HJ.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2007.
 15. Han KH. A qualitative study part-time work experience of adolescents. *National Youth Poli Insti* 2000; 11(2): 153-80.
 16. Kim YS. A study of part-time work experiences and adjustments of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2.
 17. Baker RW, McNeil OV, Sirky B.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eli Psychol* 1985; 32: 94-103.